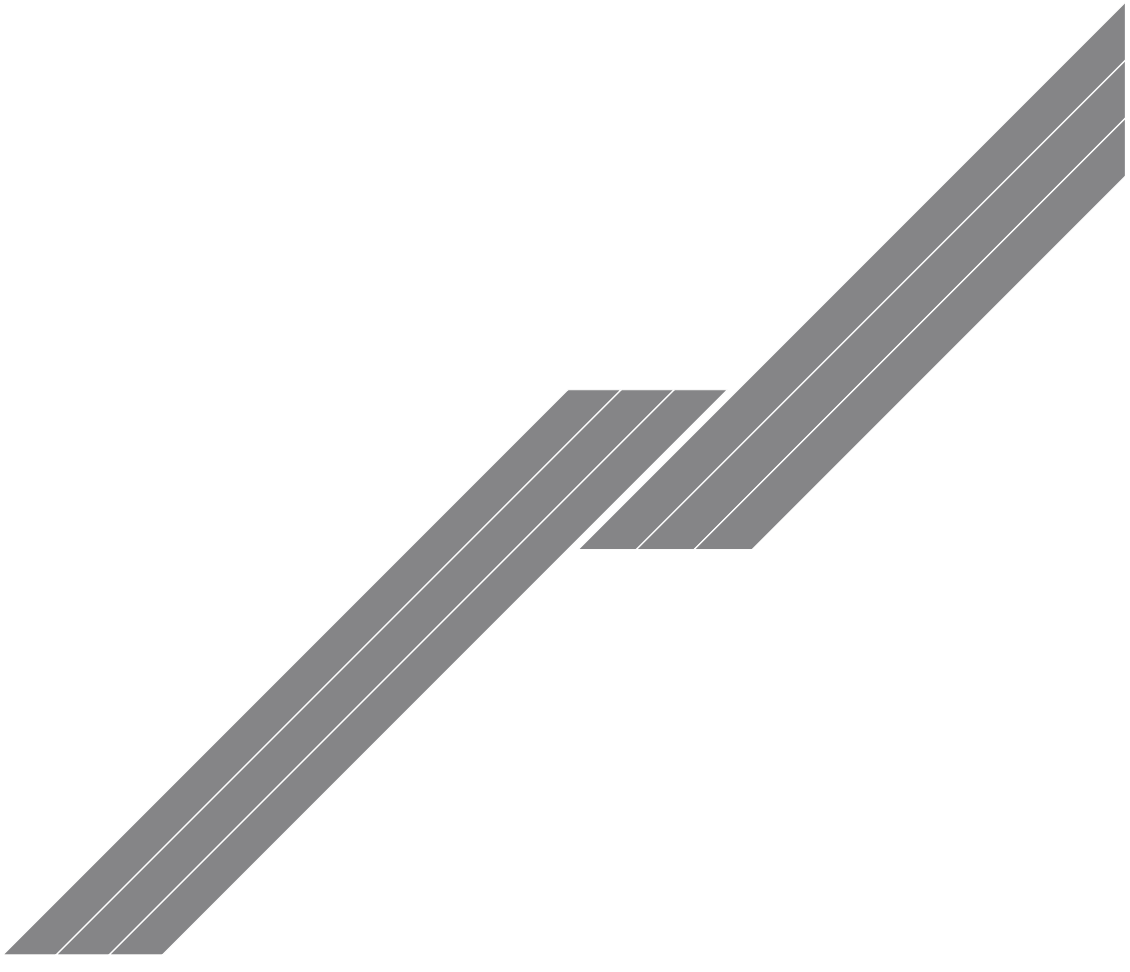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Mirok Li, der von Deutschen geliebte Weise des Orients

1899 ~ 1950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1899 ~ 1950

Mirok Li, der von Deutschen geliebte Weise des Orients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을 열며

올해는 한국과 독일이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인 특유의 순수한 정신과 예술혼으로 독일 지성인을 감동시킨 이미륵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회고하는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을 개최합니다.

이미륵 박사는 1946년, 자전적인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발표하여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 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어 독일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 거의 모든 독일인들에게 애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문학작품을 통하여 동양의 조용한 나라 한국의 풍습과 인정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잇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독일어 초고를 비롯해, 친구들과 나눈 친필 서신,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 직접 쓴 서예 작품 등 총 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미륵 박사가 남긴 귀중한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륵 박사의 삶과 작품이 재평가 되고, 그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순수한 정신과 휴머니즘을 남긴 세계적인 위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위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의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임 원 선

이미륵을 회고한다

2013년은 한독 수교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되돌아보면 한독간의 첫만남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요한네스 아담 샬 폰 벨(Johannes Adam Schall von Bell) 신부의 교분이 북경(北京)에서 이루어졌던 1644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1669년에 발간된 그림멜스하우젠(J. Chr. Grimmelshausen)의 『모험적인 짐플리치시므스(Der abenteuerliche Simplicissimus)』에서 한국이 최초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호 괴테는 1818년 7월 7일자 일기에 홀(Basil Hall)이라는 영국인이 쓴 『한국 서부해안 여행(Reise nach der Wesküste von Korea)』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기록하였고, 1827년 7월 15일자 일기에는 『영국 연대기(Britsh Chronicle)』에서 한국과 멕시코 광산에서 채굴되는 광물 종류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단행본으로 한국이 독일에 최초로 소개된 책은 1893년에 발간된 아르노우스(H. G. Arnous)의 『한국의 풍습을 소개하는 동화와 전설(Koreanische Märchen und Legenden nebst einer Einleitung über Land und Leute, Sitten und Gebräuche Koreas)』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작가가 독일어로 작품을 발표하여 한국을 독일문단에 소개한, 그것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알린 이는 이미륵(본명은 李儀景)이 최초이며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미륵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3 · 1운동에도 가담하였고, 적십자대원 및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편집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왜경을 피해 조국을 탈출한 그는 상해(上海)를 거쳐 독일로 떠납니다. 피신 이후 1920년 6월 29일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궐석재판으로 2년형을 구형받습니다.

이미륵은 1920년 5월 26일 독일 땅에 도착하여 뷔르츠부르크 및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25년부터는 뮌헨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28년에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업을 마친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곧 창작활동에 열중하여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과 이야기들을 독일의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차츰 문단의 인정을 받게 된 그는 1930년대 중반부터 심혈을 기울여 그의 대표작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집필합니다. 1946년 독일 뮌헨의 피퍼(Piper) 출판사에서 간행된 이 작품은 독일 문단과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30년간 독일 생활을 하면서 이미륵이 독일인들에게 보여준 휴머니즘과 인간상은 1950년 그의 타계와 더불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작가이자 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인격자였던 이미륵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51세를 일기로 그토록 그리던 조국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이국땅에서 외로이 타계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 9월 13일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장
정 규 화

목차

발간사 Vorwort 3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을 열며 / 임원선_국립중앙도서관장

인사말 Grußwort 5

이미륵을 회고한다 / 정규화_(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장

전시 소개 Überblick 7

Ⅰ. 생애 Der Lebenslauf 8

- 이미륵 Mirok Li 11
- 조국 Das Vaterland 12
- 사랑 Die Liebe 14
- 삶과 철학 Das Leben und die Philosophie 16
- 죽음 Der Tod 18

Ⅱ. 작품 · 사진 Werke · Photos 20

- 작품 Veröffentlichungen 23
- 편지 Briefe 26
- 서예 Kalligraphien 44
- 사진 Photos 46

Ⅲ. 부록 Anhang 54

- 이미륵 연보 Das Leben des Mirok Li 57
- 이미륵 자료 목록 Materialienkatalog von Mirok Li 58

이미륵의 순수한 한국정신 한국과 독일을 잇다!

Die reine Seele Koreaners Mirok Li verbindet Korea und Deutschland

전 세계인들은 놀라운 경제부흥과 한류(韓流)라는 독특한 문화적 아이콘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로서 세계경제의 최강국으로 그 입지가 견고해지고 있는 독일을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는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특유의 근면성으로 한강의 기적과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정치 · 경제 · 문화적으로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관계망에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 한국과 독일을 연결해주는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이미륵이다.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그의 독일어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는 그 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거의 모든 독일인들에게 애독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했던 독일인들은 이 책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르는 다리는 영원의 중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 자유, 정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상처 입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한 이미륵은 완전한 한 인간의 초상으로 각인되었다.

올해는 한국과 독일이 수교를 맺은 지 130년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 특유의 순수한 정신과 예술혼으로 독일 지성인을 감동시킨 이미륵의 생애와 업적을 회고하는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미륵의 삶과 작품이 재평가 되고, 그가 남긴 귀중한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시명 :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
Mirok Li, der von Deutschen geliebte Weise des Orients
기 간 : 2013. 9. 13(금) ~ 2013. 10. 27(일)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로비
내 용 : 이미륵의 친필 서신, 친필 원고, 사진, 서예 작품, 도서 및 유품 등 80여 점
주 최 :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후 원 : 주한독일대사관, 주한독일문화원, (사)한독협회

Ⅰ. 생애

Der Lebenslauf

Der Lebenslauf

이미륵(李彌勒, 1899-1950) Mirok Li

본명 이의경(李儀景). 필명 '미륵'은 본래 어머니가 지어준 어릴 때의 아명이다. 황해도 해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세 누이를 둔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해주 제일소학교를 졸업하던 만 11세 때 6년 연상의 아내를 맞아 1남 1녀를 두었다.

강의록으로 독학하여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9년 3·1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수배되어 상해와 프랑스를 거쳐 1920년 독일로 망명하였다. 1920년 5월 26일 독일 땅에 도착하여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및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25년부터는 뮌헨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28년에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1년 독일 문예지 ≪다메(Dame)≫에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Nachts in einer koreanischen Gasse)〉를 발표한 이후, 민족적인 경향이 짙은 단편적인 문학작품을 수시로 독일 신문 및 잡지에 발표했다. 1946년 독일 뮌헨의 피퍼(Piper) 출판사에서 자전적 소설인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발표하여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영문 및 국문으로 번역되었으며, 독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압록강은 흐른다』의 속편인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Vom Yalu bis zur Isar)』, 『이야기(Iyagi)』, 『무던이(Mudhoni)』 등의 작품이 있다.

1948년부터 뮌헨대학교 동양학부 강사로 있다가 1950년 3월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독일에서 독일어로 작품 활동을 한 유일한 한국작가이다.

정원에서, 그래펠핑(Gräfelfing), 1947

* 참고문헌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 http://encykorea.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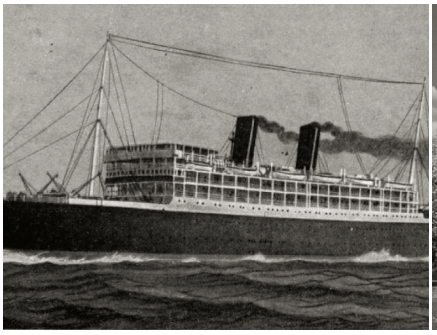
조국 Das Vaterland

조국을 위해 투쟁하다

1919년 3월 1일 〈조선독립신문〉 제 1호가 독립선언서와 함께 서울거리에 배포되고,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미륵은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이미륵은 '대한청년외교단'의 편집부장으로 외교시보 발행 및 전단을 인쇄·배포하는 일을 맡았다. 만세시위를 위해 작성된 〈국치기념경고문〉 300매를 인쇄하여 배포했고, 이러한 비밀 활동이 첩보원에 발각되면서 주요인물들이 체포되었다. 이때 이미륵도 수배인물로 지목되어 상해(上海)로 망명길에 오른다. 상해에서 임시정부 산하 대한적십자회의 십자대 대원으로 발탁된 의학도 이미륵은 간호사 양성과 교육을 담당하면서 유학을 준비한다. 1920년 4월 16일 그는 중국인 신분의 학생 여권으로 유럽행 프랑스 여객선 '르 뽈르까(Le Paul Lecat)'에 몸을 싣고, 망명자의 여정에 오른다.

운명의 땅, 독일에서!

1920년 5월 26일 독일 남부 도시 뷔르츠부르크 근처 뮌스터 슈바르차하 수도원에 도착한 이미륵은 운명의 땅 독일에서 그의 고단한 여정을 멈추었다. 적막한 수도원. 청년 미륵은 이곳에서 8개월 동안의 평화로운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수도원을 떠나 뷔르츠부르크로 향한다. 1925년 의학공부를 그만두고 뮌헨대학교 동물학과로 전과하여 새로운 학문적인 시도를 하였다. 1927년 2월 베를린과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김법린, 이극로와 함께 결의문 '한국의 문제(The Korean Problem)'의 초안을 작성하고, 완성된 결의문을 독일어, 불어, 영어로 번역하여 소책자로 만들어 벨기에 브뤼셀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참가한다. 이것은 그가 국존(國尊)과 자존(自尊)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더욱 투쟁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



상해에서 마르세유로 가는 프랑스 여객선 '르 뽈르까(Le Paul Lecat)', 1919

독일의 첫 체류지, 슈바르차하 수도원

세계피압박민족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미륵, 〈동아일보 1927. 5. 14.〉

독일서 받은 최초의 차관, 숨은 공로자는 이미륵 박사

“국민들을 먹여 살릴 돈을 빌려 주십시오.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릴 돈을 빌려 주십시오.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64년 12월 8일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한 만찬장에서 서독 총리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1897-1977)에게 간절히 도움을 호소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대통령의 손을 마주 잡고, 회담 후 담보 없는 차관을 독일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1억 5천만 마르크(당시 3000만 달러)를 빌리는데 성공한 박 대통령은 사절단과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국제적 상업 차관이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 돈이 되었다.

그런데 독일이 조건 없는 차관을 제공했던 신뢰의 배경에는 이미륵 박사가 있었다. 당시 독일인들은 거의 대부분 1920년 독일로 망명하여, 독일어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저술한 한국인 이미륵을 알고 있었다. 종전 직후 발표된 그의 소설은 패전으로 절망적인 자존상실에 빠진 독일인들에게 애독되었고 독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책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기도 했다. 1964년 당시 차관을 얻기 위한 독일 행에 통역관으로 대통령을 수행했던 백영훈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유산이 정신적 혼돈에 빠진 독일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러한 독일인들의 도움이 최초의 차관으로 이어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京鄉新聞

朴大統領 오늘 歸國

「協力의 씨」 심고 떠난다

離獨 聲明 보다 緊密한 紐帶 마련

◇歸路에 오르는 朴大統領

彈劾

공도시계

박 대통령 독일에 ‘협력의 씨’ 심고 귀국, 〈경향신문 1964. 12. 15.〉

사랑 Die Liebe

그의 인간미는 여전히 독일 땅 곳곳에

작가 이미륵의 순수하고 고귀한 휴머니즘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독일인들의 가슴에 오롯이 남아있다. 이미륵이 남긴 "인간미"와 "따스함"은 독일 땅 구석구석에 변치 않은 채 절절히 배여 있다. 그가 남긴 깊은 족적은 현지에서 친분을 나눈 지인들의 회고를 통해 드러난다.

먼저 알프레드 자일러(Alfred Seyler, 1880-1950) 박사다. 뮌헨 판화박물관 관장이었던 그는 딸로부터 젊은 동양인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이미륵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자일러 박사는 한 눈에 낯선 동양인 청년 이미륵의 남다른 품위와 지성을 간파했다. 그의 가족들은 총명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이 청년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친륜과도 같은 깊은 인연을 맺었다.

또 다른 한 명은 민속학자 쿠르트 후버(Kurt Huber, 1893-1943) 교수다. 이미륵은 후버 교수와 알게 된 후 인간의 육체와 영혼, 도덕적 윤리와 동양적 세계관에 대해 밤새도록 담론을 나누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후버 교수는 반나치 투쟁을 하다 1943년 7월 13일, 뮌헨의 슈타델하임(Stadelheim)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진다. 후버 교수가 처형당한 뒤, 그의 많은 지인과 동료들은 후버가(家)의 사람들을 멀리했지만 이미륵은 곤경에 처한 후버 교수의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은 이미륵의 따뜻한 인정을 두고두고 잊지 않았다.

"백장미 사건 이후 모든 친지들과 지인들은 우리 가족을 멀리했어요. (중략) 그러나 누구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 박사는 자신이 안 먹고 싸온 음식을 감옥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 후버 교수의 딸 브리기테 바이스(Brigtitte Weiss)의 증언에서

독일 양부모 자일러(Seyler) 교수 부부와 함께

자일러부부, 가정부 리나(Lina)와, 1947

자일러 교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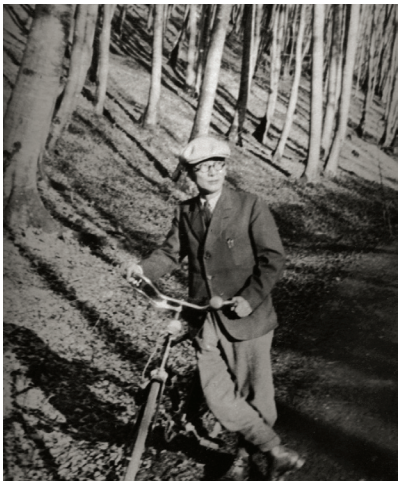
삶의 고귀한 가치를 입증한 인간 이미륵

무시무시한 굉음과 쏟아지는 포탄. 그 사이로 한 남자가 황급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리고 있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풍경 속의 남자는 이미륵이었다. 검고 둥근 뿔테 안경 너머로 상기된 검은 눈동자는 희뿌연 포연 속에서 불길을 뿜어대고 있는 폐허 속을 부산하게 헤집었다. 독일에서 사귄 친구 게오르크 가브리첩스키(Georg Gabritschevsky)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미륵은 내겐 유일하게 각인되었던 '진정한 군자'의 화신이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공습이 끝난 후 화염에 휩싸인 집을 내가 막 떠나려 할 때 그가 바로 앞에 마치 왕처럼 나타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분 혼자서 나를 찾아왔던 거지요." - 게오르크 가브리첩스키(Georg Gabritschevsky)의 편지에서

불타는 광란의 도시를 빠져 나온 두 사람. 전쟁 속에서, 아니 극도의 피폐된 정신적 고난 속에서 이미륵의 선행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옳지 않음'에는 늘 날카로운 웅변을 토했고, '선을 행함'에는 늘 소리를 낮추었다.

"우리는 세상의 소란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자기를 본보기로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입증한 한 인간이자 작가였던 이미륵을 존경한다. 그의 정직과 선함은 민족 혹은 종족 간의 다름조차 뛰어넘을 수 있게 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나로부터 가장 먼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독자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독자성을 보다 심오하게 하고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 제자, 볼프강 바우어(Wolfgang Bauer) 교수의 글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미륵, 1943

게오르크 가브리첩스키(Georg Gabritschevsky)와 함께, 1943

진리 탐구와 실천적 지성으로 '완전한 인간상' 심어

이미륵은 진리를 쫓는 순수한 탐구자이자, 동양의 심오한 철학적 본질을 일깨워주었던 교육자였다. 동시에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에 걸맞는 실천적 태도도 견지했다. 동시에 이따금 재치 있는 말솜씨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의 유연하면서도 때로는 확신에 차 있는 냉철한 위트는 독일인에게 완전한 인간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1936년 코펜하겐 국제회의 때 있었던 일이다. 그는 회의가 열리던 배에서 한 젊은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젊은 남자는 말 머리와 끝마다 '히틀러'를 붙였다. 한참동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미륵은 그에게 히틀러가 도대체 누구냐고 아주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는 기겁을 하며 "아니, 히틀러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오?"라고 소리쳤다. 이미륵은 진지함을 가장해 대꾸했다. "히틀러? 나는 그 이름을 들어 본적이 없소." 그러자 그 젊은 남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소?"라고 물었고, 미륵은 "독일에서 왔소."라고 응수했다. 갑판 위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히틀러 독재시대에 '히틀러'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망명자의 당당함은 아주 오랫동안 지인들 간에 화제(話題)거리가 되었고, 그의 의연했던 면모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 속 한 장면으로 그들에게 각인되었다. 위기를 위트로 유희하는 그의 독특한 자질은 늘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했다. 그는 언제든 철학적 심연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현자의 유머를 지니고 있었다.

이미륵의 손

연구작업을 마치고, 그래펠핑(Gräfelfing) 1934

죽음 Der Tod

불굴의 영혼, 영원히 잠들던 순간

1950년 3월 20일 병상의 이미륵은 하녀에게 물 한잔을 청했다. 그는 건네받은 차가운 물을 그대로 자신의 얼굴에다 뿌리고는 힘없이 침대에 쓰러지며 긴 숨을 토해내듯 말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통증으로 신음하는 그에게 주치의 페터 베크만(Peter Beckmann) 박사가 몰핀을 주사하자 곧 가쁜 숨이 잦아들고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짙은 어둠이 무겁게 드리운 초저녁(8시 20분 경)이었다. 그의 침상을 지켰던 자일러 부인과 가정부 리나(Lina) 그리고 제자, 에파 크라프트(Eva Kraft, 1923-2007)는 '애국가'를 합창하며 고독한 망명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1950년 3월 24일. 푸른 봄날 고요한 그래펠핑(Gräfelfing) 공원묘지에는 3백여 명의 독일인 조문객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관을 따랐다. 장엄하고 엄숙한 추모의식이었다. 누군가 고인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의 '트로이메라이(Träumerei)'를 불렀다. 조문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낯선 땅을 외롭게 떠돌던 한 영혼이 고향 압록강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식을 취하길 기도했다.

그래펠핑(Gräfelfing)에 있는 첫 번째 묘소, 1950

"존경하는 조문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 사랑했던 한 한국인의 묘소 앞에 서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은 정녕 비통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가 불굴의 용기와 부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생을 지탱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니르바나를 믿고 의지했으며 그가 내게 자주 말했듯이,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영원한 천국을 믿었습니다. (중략) 그의 저서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듯이, 비록 그가 죽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흐를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사랑하는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가 영면하길, 자유 속에서!"

- 안드레 엑카르트(Andre Eckardt, 1884-1974) 교수의 추모사에서

그래펠핑(Gräfelfing)에 있는 이미록의 무덤

Ⅱ. 작품 · 사진

Werke · Photos

Werke · Photos

작품 Veröffentlichungen

뮌헨의 보헤미안, 이미륵 예술혼에 눈 뜨다!

1928년 박사학위를 끝낸 이미륵은 슈바빙의 허름한 하숙집으로 이사한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는 배고픈 허기를 영혼의 자유와 꿈으로 채워 나갔다. 이미륵은 '정신적인 것'에 몰입했고 그것은 점차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예술혼으로 변해갔다. 1931년 그는 한국적 주제와 우화적 골계미가 돋보이는 독일어 수필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Nachts in einer koreanischen Gasse)〉를 발표하며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3년 후 유럽문화에 대한 비판적 에세이 두 편 〈서양의 영향 - 동양의 옛 종교들〉과 〈기독교의 유입 - 유물론의 속박 속에서〉를 출간했다.

이후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단편 〈수암과 미륵〉(1935)과 〈어느 한국인의 유년에 대한 회상〉(1942)을 발표했다. 1946년 5월, 이미륵은 마침내 대표작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독일 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그 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독일 피퍼(Piper) 출판사에서 출판한 『압록강은 흐른다』, 1946

"이 책을 통해 보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수 천 년 오랜 문화를 지니고 있는 먼 낯선 나라의 관습과 생활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깊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강한 것과 더 영속적인 것 보다는 조용함과 순수함, 그리고 '선'에 대한 믿음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켰다. 이 책의 모든 행간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인식할 수 없었던 혹은 경험할 수 없었던 작가의 심오한 내면의 현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함에 대한 믿음을 느낄 수 있다."

- 루드뷔히 하르팅(Ludwig Harting) 서평에서

작품 표지 사진

독일 잡지 〈아틀란티스(Atlantis)〉에 소개된 〈수암과 미륵〉, 1935

『이야기(Iyagi)』의 독일어판, 1974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Vom Yalu bis zur Isar)』의 국문판 표지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가 실린 독일 교과서

심오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함에 대한 믿음

'어린 시절 이야기로 대륙과 바다를 넘어 한국과 독일을 이어준 아름다운 다리는 멀리 멀리 뻗어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의 가교가 되었다.'

1946년 세계 2차 대전에 패배하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독일인들에게 이미륵은 인간의 원초적 순수, 즉 '선(Güte)'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선사했다. 이미륵의 독자 가운데 훗날 뮌헨대학교 독문학 교수가 된 헤르베르트 괴페르트(Herbert Göpfert, 1907-2007) 박사도 있었다. 뒤늦게 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독일의 패전으로 프랑스 군에 체포되어 포로수용소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1946년 말경 수용소에서 독일신문에 실린 아주 특이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바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에 관한 서평이었다. 독문학을 전공했던 그는 처음에는 독일인 작가가 아닌 한국인 작가가 책을 썼다는 데 호기심이 끌렸고, 책을 구입해 여러 번을 읽으면서 작가의 아름다운 독일어 문체에 깊이 감동했다.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귀향을 하게 된 그는 순전히 작가 이미륵을 만나기 위해 그래펠핑(Gräfelfing)의 "월요 대담회"에 동참했다. 이처럼 독일의 학자들과 또 예술가들은 이미륵의 모습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고,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다. 모두 그의 작품 때문이었다.

"당신의 편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중략) 당신 글의 말없는 가르침은 동양 문화와 정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독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유년을 소개했고 심지어는 열 두 살 난 딸아이에게 이야기 해주자, 깊은 애정을 갖고 그것을 읽더니 몹시 감동적이었다고 좋아하더군요. 내가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몹시 즐거워했던 것처럼 말이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탐독한다는 것은 이 책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체의 간결성, 분위기를 반영시키는 방식, 영혼을 일깨워 주는 표현의 절제, 신념을 북돋아 주는 인간성(일본인들을 다룰 때 조차도!), 나는 이 책을 마치 노련한 장인의 비단두루마리처럼 펼쳐 열었죠,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공치사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아름다운 고향과 흰 옷 입은 점잖은 한국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 특히 독일 사람으로 불려지게 했던 모든 모티브들을 다루는 당신의 작가능력에 매우 감탄했습니다. 그 독일인들은 당신에게 최악의 측면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온화하고 또한 올곧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현상들을 원인과 연결시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원인을 책망하지 않고, 당신 속에 사람들에 대한 동기를 품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악의, 파렴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보편적인 관계로 보고 있고, 게다가 악의와 권력에 대항하여 투옥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상과 관습을 충실히 믿는 미덕도 없지요."

- 독일 작가 슈테판 앙드레스(Stefan Andres, 1906-1970)의 편지(1947년 8월 25일, 이태리 포시타노 거주)

편지 Briefe

이미륵이 친구들과 나눈 친필 편지를 통해 독일 땅에 그가 남긴 '인간미'와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약 70여 통에 달하는 이미륵의 친필 편지와 서예 작품은 정규화 교수의 40년간의 노력 덕택에 수집될 수 있었다. "인간 이미륵을 잊을 수 없는 인격자"로 회상하는 수많은 친구들의 증언 자료와 편지들을 보면 그가 약 30년 동안 독일에 살면서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붉은 끈'으로 서로가 맺어지도록 천리의 인연에 순응해야 한다는 동양적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친애하는 암젤*

자네 집안 식구 모두에게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검소한 성탄 인사를 전하네.
내가 보내준 작은 책자 속에는 내게 많은 감명을 준 몇 개의 그림이 들어 있네.
자네에게도 그 그림들이 좋은 기분을 전해줬으면 좋겠네.
내가 보기에는 일곱 번째 그림이 기품있는 예의범절의 완성품인 것 같이 보여.
여기에 동봉하는 사진은 내가 지난번 여행 때 안트베르펜(Antwerpen)에서 어느 예술사가에게서 발견한 그림을 재생한 것일세.
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난 몇년 동안 발굴한 남한에 있는 동굴 사원(寺院)의 많은 사본들을 보았어.
내 생각으로는 4세기경의 초기 불교시기에 비해 이들 석상들은 정교하면서도 친밀하고 자유롭게 표출된 것 같네.
이것을 보면 어쩌면 자네에게도 약간의 윤곽이 나타날 것일세.
약 1개월 전에 나는 안트베르펜에서 어느 독일계 벨기에인의 조교로 있다가 이제 조국으로 귀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향인을 방문하기 위해 그곳을 다녀왔네.
이 벨기에의 고고학자이자 예술사가는 내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보여줬고, 나로 하여금 많은 새로운 귀중품들을 보고 감동하게 하였어.
나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네.
이번 겨울을 나와 자일러 교수네 식구들은 모두 슈타른베르크호(湖) 옆에 있는 베르크(Berg)라는 곳에서 보내고 있네.
왜냐하면 전에 살던 뮌헨집은 이미 팔렸고, 그래펠핑(Gräfelfing)에 새로 짓게 되는 새 집은 내년에야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숲가에 있는 조그마한 목조건물 집에 살고 있어.
이제 우리는 성탄절과 이 숲 속에서 보내게 될 겨울을 기뻐하고 있다네.

1936년 성탄절
자네의 미륵
자네의 부모님께 안부인사를 전하게.
자네 부모님의 새 주소가 지금 내게는 없어.

* 암젤 살러 박사(Dr. Anselm Schaller): 뮌헨대학교 동물학과 동기 동창생

(4)

Dr. Schaller

*

Lieber Amsel,

mit den besten Wünschen für Euch alle schicke ich Dir einen bescheidenen Weihnachtsgruß. Das kleine Büchlein enthält einige Bilder, die mir sehr viel gegeben haben. Mögen Sie Dir auch einige Saiten anklingen. Das 7. Bild scheint mir als eine Vollendung des reinen Tons.

Das beigefügte Bild ist meine Reproktion eines Bildes, das ich auf meiner letzten Reise in Antwerpen bei einem Kunsthistoriker fand. Ich sah dort viele Abbildungen eines Höhlentempels in Südkorea, den man in den letzten Jahren ausgegraben hat. Im Verhältnis zu der frühbuddhistischen Zeit (4. Jh. n. Ch.) scheint mir diese Steinfigur wunderbar innig u. frei herausgeholt worden zu sein. Vielleicht sprechen Dir einige Linien von ihr!

Etwa vor einem Monat war ich dort, in Antwerpen, um einen Landsmann von mir zu besuchen, der bisher bei einem deutschen Belgier assistiert hat und nunmehr seine Heimreise antritt. Der belgische Archaologe u. Kunsthistoriker hat mir sehr viel Schönes gezeigt und mich für viele neue Werte empfänglich gemacht. Ich war ihm sehr dankbar.

Diesen Winter verbringe ich (auch die ganze Familie Seyler) in Berg am Starnbersee, weil das Münchner-Haus verkauft worden ist und

das neue
gebaut
wir alle
Waldran
Winter

B
Adresse

사랑하는 레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말과 많은 섬세한 관심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려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레네.
모든 것이 베르크(Berg)에 사는 식구들과 나를 매우 행복하게 해 준
당신의 따뜻한 본성에서 온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며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특히 호숫가의 조용한 길을 걸을 때면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준 것은 나를 무척 기쁘게 했답니다.
잘 지내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를 전합니다.

베르크에서, 1937년 11월 23일 미륵

* 헬레네 군데르트(Helene Gundert): 독지가인 자일러 교수의 딸 무미(Mumi)와 친구 사이, 이미륵과도 매우 친하게 지내던 여성

Liebe Lene,

hab meinen innigsten Dank für deine lieben Worte und die vielen zarten Aufmerksamkeiten, die ich wohl nicht verdient habe; nein, Lene, bestimmt nicht. Alles kam nur von deinem sonnigen Wesen, das alle Menschen in Berg u. auch mich sehr beglückt hat.

Wir sprechen oft von Dir und denken an Dich. Ich tue dies mit einer großen Dankbarkeit, wenn ich den stillen Weg am Strand gehe. Du hast mich sehr, sehr gefreut mit dem Stück Weg, den Du mit mir gegangen bist.

Lebe wohl, sei herzlichst gegrüßt

von deinem Wirrok.

Berg, den 23. Nov. 1937.

친애하는 베너

유감스럽게도 어제 자네에게 보냈던 내 편지가 돌아 왔는데 오늘 자네의 새 주소를 받았네.
이제 장개석과 에벌레(Eberle)씨가 자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책과 함께 그 편지를 보내네.
이 역사책의 2면 빈 자리에 내가 중국어로 한 줄 써넣었네.
왜냐하면 에벌레씨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일세.
그것은 중국 시에서 찾은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네.

"불사조는 날아가 버렸다. 정자는 비어 있고 강물은 홀로 흐르고 있네.
허무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는 구나."

작은 글씨는 '카이저게비르크(Kaisergebirg)의 어느 날 밤을 회상하며'일세.
중국활자는 정말 아름답네.
두 번째로 큰 12P 활자와 우스티아(Ustia) 크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일세.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구두로 하겠네.

1940년 7월 25일 안녕, 미륵으로부터

Gräfelfing, den 25. Juli 1940

Lieber Freund,

Vorgestern kam leider mein Brief an Sie zurück u. heute erhalte ich von Ihnen die neue Adresse. Nun schicke ich den alten Brief mit Dschang Kai Sek und einem zweiten Buch, das von Herrn Eberle zu Ihnen geschickt wird. Auf der 2. leeren Seite dieses Geschichtsbuches habe ich eine Zeile chinesisch geschrieben, weil es Herr Eberle wollte. Es ist aus einem chinesischen klassischen Gedicht und lautet: „Der Phönix ist weggeflogen, Laube leer und der Strom fließt für sich allein."; ein Seufzen über das Vergängliche. Die kleineren Schriftzeichen: „In Erinnerung an die eine Nacht im Kaisergebirg"

Die chinesischen Typen sind sehr schön. Wir könnten mit 2. Größen: Cicero u. Tertia auskommen. Doch darüber später mündlich.

Auf Wiedersehen!

Herbert L.

사랑하는 마야에게

사진들을 보내드릴 수 없어서 유감스러워요.
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힌터리스(Hinterriss)까지는 완전히 혼자서 자전거로 갔고, 팔켄휘테(Falkenhüette)까지는 아름다운 라리더러반트(Lalidererwand)를 구경하기 위해 걸어서 올라갔어요.
산과 계곡에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언제고 이곳에 오면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곧 이곳에 올 수 있고 베너도 함께 오면 좋겠네요.
엊저녁에 나는 게르트루트(Gertrud) 여사댁을 방문하고 그녀와 그녀의 부군과 함께 좋은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부군은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내 건강상태는 항상 여전합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지요.
오전에는 정원에서 일 좀 하고, 그 밖의 육체적인 일도 조금 하지요.
오후에는 힘이 닿는 대로 글을 쓰고, 또한 때때로 베른하르트(Bernhard)와 내가 발행하려는 중국어문법 작업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워요.
브루노(Bruno)도 잘 지내고 있지요. 그는 일을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는 그가 전시하려고 준비한 새로운 풍경화를 보여주었는데, 알프스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였어요.
우리는 물론 당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지요.
며칠간이라도 당신들과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가 무척 기뻐 할 거에요.

1940년 8월 16일 안녕, 미륵으로부터

Liebe M a j a,

Wie schade, daß ich Dir keine Bilder schicken kann! Ich habe nämlich wieder eine Bergtour gemacht, eine Bergtour per Rad. Ganz allein bin ich mit dem Rad bis Hinterriß gefahren und zu Fuß bis Falkenhütte gestiegen, um die schöne Lalidererwand zu sehen. Viele nette Aufnahmen konnte ich machen, sowohl von den Bergen als auch von den Tälern. Ich werde sie Dir zeigen, wenn du da bist. Hoffentlich kommst du bald hierher und auch der gute Bernhard!

Gestern Abend habe ich Gertrud in ihrer Wohnung besucht und habe mit ihr und ihrem Mann eine gute Unterhaltung gehabt. Er scheint ein sehr feiner Mensch zu sein.

Mir selbst gehts es wie immer. Ich fühle mich wohl. Vormittags arbeite ich im Garten und verrichte sonstige körperliche Arbeiten. Nachmittags schreibe ich, soviel ich kann, arbeite ab und zu auch an der chinesischen Grammatik, die Bernhard und ich herauszugeben gedenken. Ich zweifle aber sehr, ob ich sie in absehbarer Zeit fertig machen kann.

Bruno gehts es gut. Er arbeitet viel. Gestern zeigte er mir seine neuen Landschaftsbilder, die er für eine Ausstellung gemalt hat, durchwegs zarte Landschaften von Voralpengebieten. Wir haben auch von Euch gesprochen; er wird sich sehr freuen, wieder einige Tage mit Euch zu plaudern.

Auf Wiedersehen!

München, den 16. Aug. 1940.

Mitti

2120

친애하는 베너에게

친절한 조언과 편지에 대해 감사를 드리네.
어제 나는 성(成)이라는 중국인과 접촉했는데 다음 주부터나 또는 늦어도 성탄 이후에 바로 우리의 작업을 시작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네. 이 중국인과의 대화는 아주 좋았네.
자네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서 유감이네.
원고 발송 문제는 자네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자네에게 위임하네. 서로 의논하는 일이 성탄 이후에나 시작될 것 같으면 카드와 붓잡는 자세에 관한 사진을 동시에 보내겠네.
나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네.
카드 모양을 만드는 일이 나에게는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세.
내가 그리는 것은 강들, 산들 그리고 아욱스부르크(Augsburg) 정도로 큰 도시들이고, 모든 지명은 별도로 중국 문자로 기입해야만 하네.
이 작업도 거의 끝났지만, 혹시라도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 없는가 보기 위해 다시 한 번 중국 카드와 비교해야만 하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대략 13-18 크기로 확대할 계획이네. 어려운 작업이지만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
어제 브루노(Bruno)에게 잠시 들렸더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일거리도 많았고.
밀리(Milly)는 집에 없기에 우리 둘이 한참 동안 이 작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네.
참 즐거웠어. 가끔 계획하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심씨에게는 가지 못했어.
뮌헨에 갔을 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학생들을 살펴봐야 했고, 그리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또 누구를 방문할 기력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지.
스웨덴에서 친절한 편지를 보내준 마야(Maya)에게 곧 편지를 보내겠네.

질문이 하나 있네.
자네가 지난번 이곳에 왔을 때 혹시 내가 쓴 중국어 회화 원고를 갖고 가지 않았나?
오래 전부터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네.
성탄절 전에 다시 한 번 편지할 기회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 미리 즐거운 휴일을 보내기를 빌며 신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비네.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열심히 작업을 하여 보세.
이 희망만이 축제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 연말연초에 나를 위로한다네. 잘 있게.

그래펠핑(Gräfelfing), 1940년 12월 12일
미륵으로부터

추신: 브루노(Bruno)가 게으른 탓에 보내준 쵸콜렛은 아직 받지 못했네.
받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감사를 전하네.

Lieber Freund,

für die Anweisung und den lieben Brief meinen herzlichen Dank! Gestern habe ich mich bereits mit einem Keifeng-Chinesen namens Sung ins Benehmen gesetzt und hoffe, daß wir von der nächsten Woche ab oder spätestens nach Weihnachten gleich unsere Arbeit beginnen können. Die Unterhaltung mit den Chinesen war sehr nett. Schade, daß Du nicht dabei warst!

Mit dem Einschicken des Manuskripts überlasse ich es dir, weil Du dich doch besser auskennst. Sollten wir aber die Verhandlung erst nach Weihnachten beginnen, möchte ich gleichzeitig auch eine Karte und ein Bild über die Einselhaltung miteinschicken. Ich bin gerade dabei, die beiden Dinge einwandfrei herzustellen. Die Kartenskizze besonders macht mir allerdings eine heillose Arbeit; ich zeichne Flüsse, Bergen, Städte bis zur Größe von Augsburg ein und alle Ortsnamen muß ich doch mit den chinesischen Zeichen eintragen. Sie ist nun beinahe fertig, ich muß sie nur noch einmal mit einer chinesischen Karte vergleichen, ob ich nichts wichtiges ausgelassen habe. Dann wird sie fotographiert und etwa auf 13-18 vergrößert. Es ist eine mühsame Arbeit, die mich aber doch sehr befriedigt.

Ich war gestern auch beim Bruno. Ihm geht es gut, d.h., er hat noch viel Arbeit. Milly war nicht dabei, sodaß wir eine Weile ganz sachlich über sie gesprochen haben. Es war so sehr nett.

Zu [illegible] bin ich leider nicht gekommen, obwohl ich es sehr häufig vorhatte. War ich in München, so mußte ich auf alle Fälle

beantwortet am 18. Dez. 1940.

친애하는 베른하르트

어떻게 이번에 돈(230 마르크)이 뮌헨(München)에서 왔나? 자네로부터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안 왔다네. 자네는 빌헬름스하펜(Wihelmshaven)에 잘 도착하여 복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옛날 도교도였던 자네가 해군병사로서 어떻게 다른 군인들과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는지 바라볼 수 없어서 유감이네.
자네는 아직도 "치부치 치부치 부야오취 부야오취(가느냐, 갈 필요가 없어)"를 말할 수 있나?
비가 내릴 때 찍은 사진 중에서 동봉하는 두 장은 잘 현상 할 수 있었네.
다른 사진은 잘 나오지 않았어.
어쩌면 나중에 인화지를 더 구하게 되면 창백하게 나온 필름을 다시 한 번 인화해 보려고 하네.
적어도 그 고기판매대는 다시 한 번 인화해 볼 걸세.
스웨덴으로 보내는 편지는 아직도 제대로 안 되네.
더욱이 알아듣기 힘든 말로 쓴 편지가 외국으로 발송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다시 시도해 보려네.

1941년 9월 29일 미륵

(32)

Absender: Bernhard Wehner, A.W., Marine Observatorium Gotenhafen.

Empfänger: Frau Maja Wehner, Storgatan 35 Kästervik, Schweden.

Lieber Bernhard,

wie kommt es, daß das Geld (230) diesmal von München gekommen ist? Ich wartete noch auf deine Mitteilung, die bis heute noch nicht gekommen ist. Bist Du gut in W-haven gelandet u versiehst deinen Dienst wieder gut? Schade, daß ich nicht einmal zuschauen kann, wie Du alter Tanist als Marinensoldat uniformiert die anderen uniformierst.

Kannst Du noch tjü bu tjü, tjü bu tjü, bu yao tjü bu yao tjü.

Von den Aufnahmen in den Regenwettern konnte ich die beiden beiliegenden gut abziehen. Die andern sind hëu bu hao. Später vielleicht, wenn ich etwas mehr Papiere erwischen kann, versuche ich auch die blassen Negative noch einmal abzuziehen. Wenigstens die Fleischbank.

Der Schweden-Brief ist noch nicht weiter gediehen. Zumal ich nicht weiß, ob so ein Kandawelsch-Brief ins Ausland befördert werden darf. Versuchen will ich's aber doch.

Mirok.

29. Sept. 1941

6099

beantwortet am 24. Okt. 1941.

사랑하는 헤르타*!

당신에게 인사를 전할 사진 한 장을 며칠 동안 열심히 찾아 봤어요.
그런데 동봉하는 사진 외에는 적합한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풍경화로서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피서용 별장이에요.
정오의 태양이 찌는 듯하게 내려 쬐는 것 같아요.
작은 골짜기 마당엔 정적이 흐르고 있고요.
등산객이 기나긴 여름날에 등반하고 저녁 무렵 회색빛 지붕이 있는 집의 그런 마당을 평화로운 저녁 불빛 속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거기서 사람들은 위안과 휴식을 찾을 수 있었을 거에요.
가까운 곳에서는 계곡에 냇물이 흘렀고 어느 절간의 저녁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계곡으로 울려왔지요.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앉으면 그것에 대해 좀 더 많이 얘기 할게요.
당신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셉(Sepp)과 한시(Hansi)에게 인사를 전해 주어요.

1942년 8월 8일 미륵

*헤르타(Hertha): 루폴딩(Ruhpolding)에 거주하던 친구 요셉 클레멘테(Josef Clemente, 1899-?) 박사의 부인

Liebe Bertha,

ich habe diese Tage eifrig nach einem Bild gesucht, das ich Dir zum Gruß schicken sollte; ich habe aber keine passendere gefunden als das beiliegende – ein kl. Landschaftsbild aus Korea, ein Sommerhäuschen im Gebirg. Große Hitze scheint die Mittagssonne zu strahlen; Stille herrscht in dem kl. Talhof. Schön war es, wenn man den ganzen langen Sommertag gewandert war und gegen Abend einen solchen Hof mit den grauen Dächern im friedlichen Abendlicht erblickte. Da konnte man Ergeßung u. Ruhe finden. In der Nähe floß ein Bach in der Schlucht und irgendwo wehte die Abendglocke eines Klosters ins Tal. Im Herbst, wenn wir abends wieder zusammen sitzen, laß mich etwas mehr davon erzählen.

Hab Dank für deine Güte u. Liebe! Grüß Lyy u. Hanni!

Dein Heinrich.

8.8.42.

친애하는 베른하르트

자네에게 편지 한 장 쓰는데 참으로 오랜 시일이 걸렸네.
실은 자네에게 두 통이나 보냈는데 아마도 아직 받지 못한 모양이네.
그래서 나는 어느 주소로 다시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네.
그런데 이제 자네의 정확한 주소가 왔네.
그것도 한 달이나 훨씬 전에 말일세.
그러나 나는 그때 아주 시급한 번역 작업이 있어서 자네에게 곧 편지를 쓸 수가 없었네.
그 일은 성령강림절 바로 전에 끝나 보냈고, 그리고 연이은 휴일에는 성탄절 때부터 약속한 화학자를 방문하기 위해 다시 킴가우(Chiemgau)로 갔었네.
이제 다시 여름이 되었네.
지난 겨울 내내 새로 나온 여행 안내서를 가지고 여행을 꿈꾸어 보았으니 이번 여름에는 그렇게 조용히 보내지는 않을 걸세.
자네 없이 정상까지 감히 오르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알프스 지역으로 위험이 따르지 않는 등반은 즐겨 할 수 있을 걸세.
그래서 이번에는 킴가우(Chemgau)에 있는 친구와 함께 글로크너(Glockner) 지역으로,
즉 프란츠 요셉(Franz-Josef) 고지로 출정하였네.
이 큰 글로크너슈트라쎄(Glockner Straße)는 전 동알프스 지역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네.
브루노(Bruno)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그는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일세.
그가 곧 병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우리 셋이 다시 함께 카이저(Kaiser) 지역으로 등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소식을 주게.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네.

그래펠핑(Grafelfing), 1944년 6월 3일 자네의 미륵

Papa mitgeteilt am 18. Juni 1944 (Brief Nr 3.)

38

(30)

32

Lieber B e r n h a r d,

es hat lange, sehr lange gedauert, bis ich an dich schreiben kann. Ich hatte nämlich zwei Briefe an dich geschrieben, die Du scheinbar nicht bekommen hast. So wußte ich nicht, an welche Adresse ich noch einmal zu schreiben versuchen sollte. Da kam nun endlich deine richtige Adresse und zwar schon vor mehr als einen Monat. Da hatte ich aber gerade sehr dringende Uebersetzungsarbeiten, sodaß ich nicht sofort an dich schreiben konnte. Nun sind sie fertig abgeliefert, gerade vor Phingsten und zu den Feiertagen bin ich wieder nach Chiemgau gefahren, um meinen seit Weihnachten versprochenen Besuch bei einem chemischen Kollege zu machen.

Nun ist wieder der Somer da! Diesen Sommer lasse ich mir aber nicht so sang- und klanglos vorübergehen, nachdem ich den ganzen Winter hindurch mit dem neuen Baedeker traumgewandert bin. Die Besteigung eines Gipfels wage ich wohl nicht ohne dich, aber eine gefahrlose Wanderung in ein neues Alpengebiet würde ich gerne machen. So habe ich diesmal mit dem Chiemgauer Kollegen einen Feldzug ins Glocknergebiet ausgehäckelt, nämlich auf die Franz-Josef's Höhe. Die Großglockner Straße soll das Großartigste des ganzen Ostalpengebiets sein.

Bruno scheint es nicht sehr gut zu gehen. Er liegt wegen des Magenleidens in einem Lazarett. Wir hoffen, daß er bald einen Erholungsurlaub bekommt. Wie schön wäre es, wenn wir wieder zusammen im Kaiser wandern könnten!

Laß bald wieder von Dir hören und sei für heute herzlich gegrüßt von deinem

Mutti

Gräfelfing, den 3. Juni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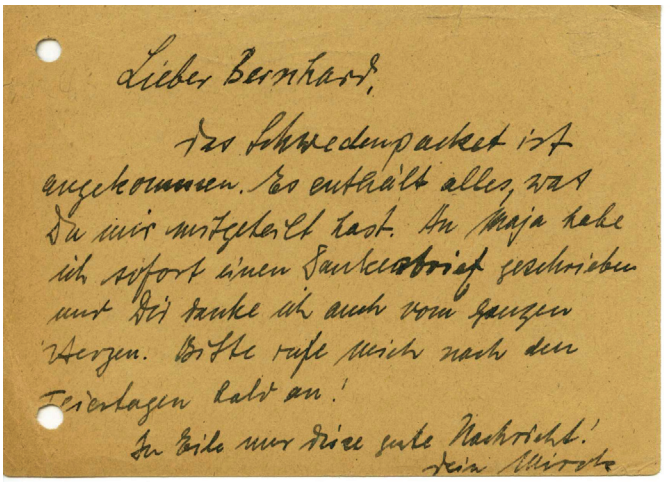
308

친애하는 베른하르트

스웨덴에서 보낸 소포는 도착했네.
자네가 전달한 대로 모든 것이 들어 있었네.
마야(Maya)에게 곧 고맙다는 편지를 썼네.
그리고 자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네.
휴일이 지나고 나면 내게 곧 전화해주게.
급히 이 좋은 소식만 전하네.

자네의 미륵

1947년 5월 25일


Lieber Bernhard,
Das Schwedenpacket ist angekommen. Es enthält alles, was Du mir mitgeteilt hast. An Maja habe ich sofort einen Dankesbrief geschrieben und Dir danke ich auch vom ganzen Herzen. Bitte rufe mich nach den Feiertagen bald an!
In Eile nur diese gute Nachricht!
dein Mir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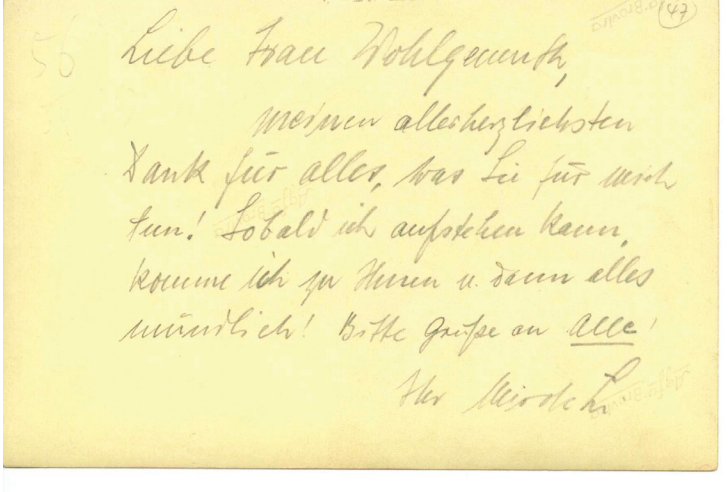
Absender: Dr. Li,
Gräfelfing
Akitinaastr. 46
German
Straße, Hausnummer, Gebäudeteil, Stockwerk oder Postschließfachnummer, bei Untermietern auch Name des Vermieters
Postkarte
MÜNCHEN 2
25.5.47 12
POST
25.5.1947
Herrn
Bernhard Wehner,
(13 b.) München
Dankwartstr. 11
b. Bosso
Straße, Hausnummer, Gebäudeteil, Stockwerk oder Postschließfachnummer, bei Untermietern auch Name des Vermieters

사랑하는 볼게무트 여사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즉시 직접 찾아 뵙고
모든 것을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당신의 이미륵



Liebe Frau Wohlgemuth,
meinen allerherzlichsten
Dank für alles, was Sie für mich
tun! Sobald ich aufstehen kann,
komme ich zu Ihnen u. dann alles
mündlich! Bitte Grüße an alle!
Ihr Mirok Li

서예 Kalligraphien

한시 서예 작품

어릴 적부터 당시(唐詩)의 다양한 시정을 경험했던 이미륵은 시를 통해 자연이 허무한 인간 존재에게 베푸는 위안을 얻었다. 그는 동양의 시문학이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들의 영혼을 숙성시키는 사색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동양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

이미륵에게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긴 시가 있다.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목숨을 바쳐 신하의 의리를 지킨 사육신(死六臣) 중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의 시다. 이 4행시는 그가 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읊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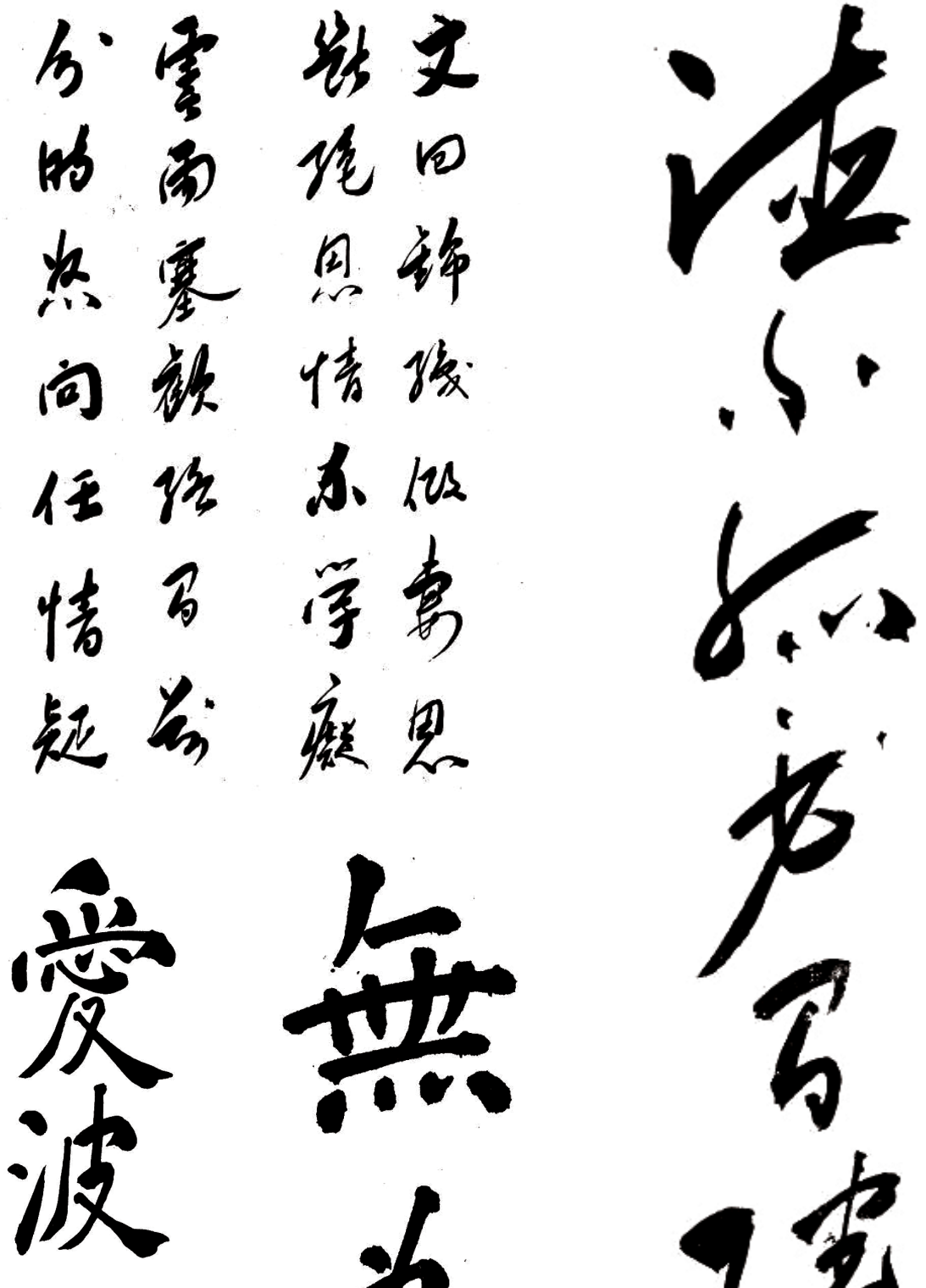
擊鼓催人命　　사람들은 북을 두들겨 대며, 내 목숨을 채근하고
回首日欲斜　　고개 돌려 바라보니, 이미 해 저물고 있네.
黃泉無一店　　저승엔 머물 곳조차 없으니
今夜宿誰家　　이 밤 그 어느 곳에 내 지친 머리를 누일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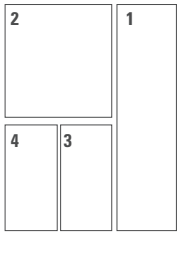
Man trommelt und fordert mein Leben.
Ich blicke nach Westen, die Sonne ist schon gesunken.
Es soll keine Gaststätte im Jenseits geben
In wessen Haus leg ich mein müdes Haupt nun nieder.

이미륵의 유품 속에 끼어 있던 친필 습자 회문시(回文詩)는 '무위의 카오스' 한 가운데서도 오롯이 살아남아 반드시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한 번 더 인내했을 그의 아주 견고한 다짐이 엿보인다.

文回錦織倒妻思,　　아내를 생각하며 비단에 회문을 짓네.
斷絶恩情不學痴　　사랑의 정을 단절한다고 치욕이 될 거며
雲雨塞歡終有別,　　운우의 정이 이별한다고 끝날 것인가.
分時怒向任猜疑.　　이별할 때 성냄은 의혹 때문이었을 테지.

독일 친구들 베너(Wehner)와 구텐존(Gutensohn)에게 서예지도를 하는 이미륵, 1935





이미륵의 친필 서예 작품

1 덕불고필유린

2 회문시

3 무위

4 애파

사진 Photos

이미륵,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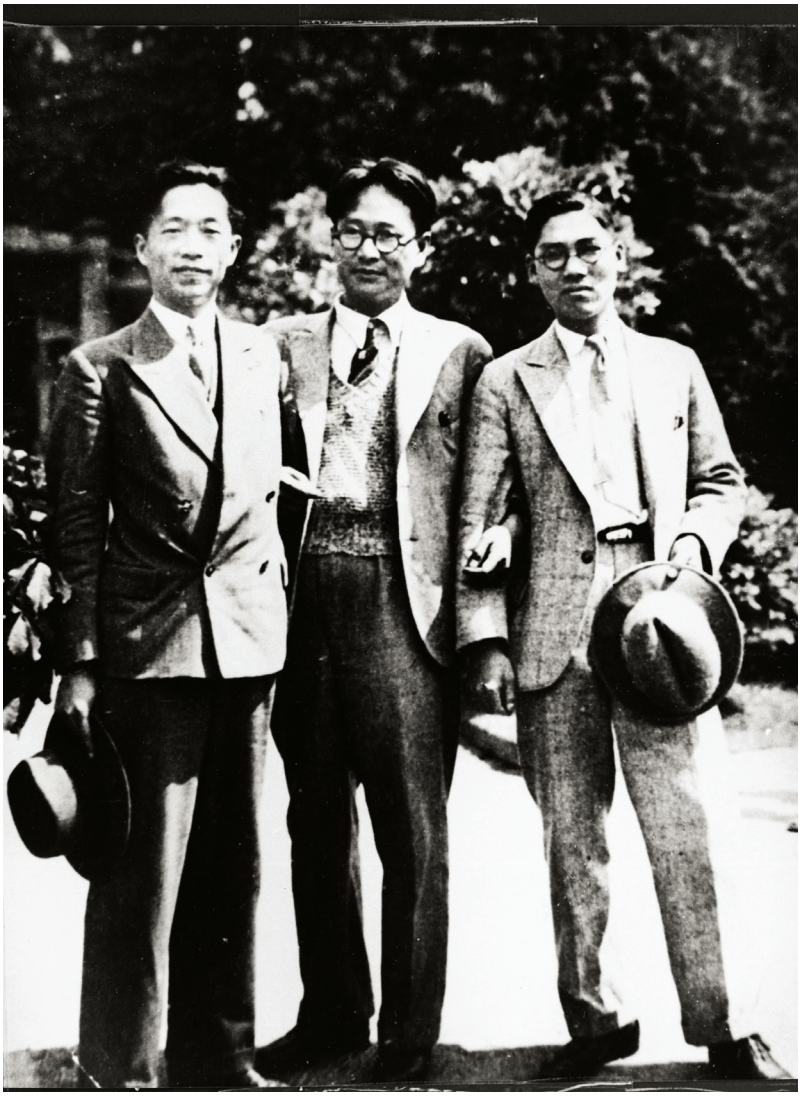
München

1	
2	3
4	5

1 한국유학생들과 함께, 뷔르츠부르크 1921
2 뮌헨대학 학생시절, 뮌헨 1927
3 뮌헨 1927
4 박사학위 취득 직후, 뮌헨 1928
5 이자르강가에서 부르노 구텐존 (Brouno Gutensohn) 과 생선을 구우며, 뮌헨 1929

절친한 친구 구텐존과 함께

Gräfelfin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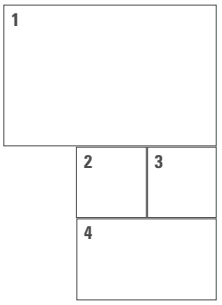
2

1 고향친구들, 그래펠핑 1940

2 오후의 커피타임, 그래펠핑 1947

부르노의 딸 발트라우트(Waltraud)와 함께, 1941

Christoph



1 크리스토프 (Christoph) 와 함께, 1941
2 크리스토프와 함께 , 그래펠핑 1938
3 이발사가 된 이미륵, "크리스토프는 내 단골", 1942
4 크리스토프(자일러 교수의 손자)의 친구가 되어, 그래펠핑 1942

자일러 교수의 손자 크리스토프를 업고, 1941

Ⅲ. 부록

Anhang

Anhang

이미륵 연보 Das Leben des Mirok Li

1899

1899년 3월 8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

1910-1914년: 해주 제일소학교에 다님

1917년: 강의록 독학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 입학

1919년: 3·1운동에 참여. 같은 해 8월 29일 '대한청년외교단'의 편집부장으로 〈국치기념경고문〉을 인쇄·배포하다가 일경에게 수배인물로 지목되어 상해로 망명

1920

1920년 4월: 프랑스 여객선 '르 뽈르까(Le Paul Lecat)'로 유럽행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궐석재판으로 출판법 위반에 따른 징역 2년형을 언도 받음

1921년: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의과대학 진학

1923년: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전학

1925년: 뮌헨대학교 동물학과로 전과

1927

192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참가

1928년: 뮌헨대학교에서 동물학박사 학위취득

1931년: 독일 문예지 ≪다메(Dame)≫에 독일어 단편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 발표

1933년 12월: 나치의 출판 검열이 자행되던 때, 유럽문화에 대한 비판적 에세이 두 편 〈서양의 영향 - 동양의 옛 종교들〉과 〈기독교의 유입 - 유물론의 속박 속에서〉를 발표

1935

1935년: 독일 잡지 〈아틀란티스(Atlantis)〉에 단편 〈수암과 미륵〉을 발표

1942년 6월: 독일 잡지 〈아틀란티스(Atlantis)〉에 독일어 단편 〈어느 한국인의 유년에 대한 회상〉 발표

1946

1946년 5월: 독일 뮌헨의 피퍼(Piper) 출판사에서 대표작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출판

1948년-1950년: 뮌헨대학교 동양학부에서 한국의 언어와 역사, 동아시아 문학사, 동양철학개론 강의

1950

1950년 3월 20일: 그래펠핑(Gräfelfing) 자택에서 위암으로 타계

1963년: 대통령표창(독립운동 공로)

1990년 12월 26일: 훈장증(건국훈장 애족장, 제2019호) 추서

이미륵 자료 목록 Materialienkatalog von Mirok Li

발표작 및 기고문(Selbständige Veröffentlichungen und Beiträge)

1. Yiking Li : Regulative Erscheinungen bei der Planarienregeneration unter anormalen Bedingungen(변칙조건에서 본 플라나리아 재생의 규제적 현상). Diss. München 1928. (박사학위 논문).
2. _____ : Nachts in einer koreanischen Gasse. In: Die Dame, Heft 9 (Jan. 1931), S. 16-17 u. 34.
3. _____ : Ahnenkult in Korea. In: Ostasiatische Rundschau, Jg. 14, 1933.
4. _____ : Zwischen Jenseits und Diesseits. In: Düsseldorfer Nachrichten, Düsseldorf 1. 2. 1933.
5. _____ : Europakenner. In: Hamburger Fremdenblatt, Hamburg 18. 2. 1933.
6. _____ : Das rote Tor. In: Hamburger Fremdenblatt, Hamburg 13. 5. 1933.
7. _____ : Verwechslung. In: Düsseldorfer Nachrichten, Düsseldorf 5. 11. 1933.
8. _____ : Religionen in Korea. o.O., 20./21./22. 12. 1933.
9. _____ : Korea und die Koreaner. In: Hamburger Tageblatt, Hamburg 9. 2. 1934.
10. _____ : Der andere Dialekt. In: Düsseldorfer Nachrichten, Düsseldorf 16. 3. 1934.
11. _____ : Erklärung meiner Hautfarbe. In: Düsseldorfer Nachrichten, Düsseldorf 17. 8. 1934.
12. Mirok Li : Suam und Mirok. Kindheitsbilder aus Korea. In: Atlantis. Hrsg. von Martin Hürlimann, Zürich 1935, S. 349-360 (H. 6) u. S. 428-437 (H. 7).
13. _____ : Nolbu und Hungbu. o.O., 5. 5. 1939.
14. _____ : Herr und Knecht. In: Frankfurter Zeitung, Frankfurt 21. 2. 1941.
15. _____ : Jugenderinnerungen eines Koreaners. In: Atlantis, Berlin u. Zürich 1942, S. 193-199 (H. 6) u. S. 263-267 (H. 8).
16. _____ : Der Yalu fließt. München (Piper) 1946, 1950.
    Zürich (Büchergilde Gutenberg) 1954.
    St. Ottilien (EOS) 1974, 1996.
    Seoul (Shintzisha) 1974.
    Seoul (Pan Korea) 1979.
17. _____ : Iyagi. Kurze Koreanische Erzählungen. Hrsg. von Kyu-Hwa Chung, St. Ottilien(EOS) 1974, 1996.
18. _____ : 『Vom Yalu bis zur Isar』. Hrsg. von Kyu-Hwa Chung, Waegwan/Korea (Benedict Press) 1982.
19. _____ : 『Der andere Dialekt』. Hrsg. von Kyu-Hwa Chung, Seoul/Korea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1984.
20. _____ : Zeichnung des chinesischen Originaltitels. In: Stimmen der Völker, H. 16/17, Gauting 1947 (Bavaria Verlag), S. 605.
21. _____ : Zeichnungen der chinesischen Schrifttafeln. In: Stimmen der Völker, H. 17/18, Gauting 1947, S. 629-672.
22. _____ : Kurt Huber und das Ausland. In: Kurt Huber zum Gedächtnis. Bildnis eines Menschen, Denkers und Forschers. Hrsg. von Clara Huber, Regensburg 1947, S. 160-164.
23. _____ : Chinesische Dichtung. In: Welt und Wort, Literarische Monatsschrift, Heft 3, Bad Wörishofen 1948, S. 61-63.
24. _____ : Die Nachkriegsliteratur. In: Der Schriftsteller. Zeitschrift des Schutz-verbandes Deutscher Schriftsteller. Hrsg. von Rudolf Schneider-Schelde. Jg. 1, (1947/48), Heft 6/7. München 1948.
25. _____ : (Hrsg.): Tsurezuregusa(Yoshida Kenko). Bergen 1948.
26. _____ : (Hrsg.): Japanische Dichtung. Bergen 1949.
27. _____ : Der treue Nachfolger. o. J.
28. _____ : Warum die Katzen die Hunde anfauchen. In: Grüne Post. o.J.
29. _____ : Der singende Kropf. In: Die Dame. o.J.
30. _____ : Zwei gelbe Papierlampen. o.J.
31. _____ : Kinderkummer. In: Hamburger Fremdenblatt, Hamburg 5. 4. o.J.
32. _____ : Sonne war froh. In: Hamburger Fremdenblatt, Hamburg 3. 2. o.J.
33. _____ : Japanisches Kopfweh. o.J.

유고(Nachlaß)

1. Mirok Li : Mudhoni. Ein koreanisches Bauernmädchen. In: Atlanstis, 1952, S. 335-362 (H. 8) u. 400-406 (H. 9).
2. _____ : Von Geistern, Tieren und Stiefmüttern. In: Atlanstis, 1953, S. 297-304 (H. 7).
3. _____ : Mutterstolz. In: Atlantis, 1953, S. 299-300.
4. _____ : Der beste Arzt. In: Atlantis, 1953, S. 299-300.
5. _____ : Am Schwanz des Tigers. In: Atlantis, 1953, S. 300.
6. _____ : Kimponghui verkauft einen Strom. In: Atlantis, 1953, S. 300-301.
7. _____ : Die blaue Naht. Unter dem Titel "Wundermappe" in "Atlantis", 1953, 301-302.
8. _____ : Die letzte Rettung. In: Atlantis, 1953, S. 302.
9. _____ : Der singende Kropf, In: Atlantis, 1953, S. 303.
10. _____ : Uolmä und die böse Stiefmutter. In: Atlantis, 1953, S. 303-304.
11. _____ : Das Padukspiel und andere Legenden aus Korea. In: Atlantis. 1953, S. 462-463 (H. 10).
12. _____ : Wie der Tongbangsok doch gefangen wurde. In: Atlantis, 1953, S. 463-464.
13. _____ : Begegnung. In: Atlantis, 1953, S. 464.
14. _____ : Nord und Süd. In: Atlantis, 1953, S. 464.
15. _____ : Musuong. In: Atlantis, 1953, S. 464.
16. _____ : In unserem Lande herrschte Frieden. In: Korea erzählt. Hrsg. von Johanna Herzfeldt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Berlin 1954.
17. _____ : Der Mirok-Buddha. In: Atlantis. Freiburg/Br. 1955, S. 80, 82 (H. 2).
18. _____ : Aus meiner Heimat. In: Die neue Silberfracht. 5. Klasse, Hrsg. von Gottfried Stein, Oswald Stein, Frankfurt/M. 1967.
19. _____ : Der Ausreißer. In: ebd. 6. Klasse.
20. _____ : Die neue Schule. In: ebd. 8. Klasse.
21. _____ : Die neue Schule. In: Der Fährmann. Lesebuch für Realschulen, 2. Bd. Hrsg. von Heribert Keh. Bamberg o.J.
22. _____ : Glaubst du, daß in Europa Blumen blühen? In: ebd.
23. _____ : Wir studierten im sechsten Semester. In: ebd.
24. _____ : Der Durst nach dem Leben. In: Im Gespräch, 3+4/1975, S. 17.
25. _____ : Kuhhirt und Weberin. Das hinterlassene Manuskript. (지상에 기고 되지 않았던 "유고"가 "Iyagi"에 실린 것도 HM 로 표시함).
26. _____ : Tierintelligenz. HM.
27. _____ : Der Knecht im Gelehrtenhut. HM.
28. _____ : Der kleine Boksuri mit dem großen Fenster. HM.
29. _____ : Der Dieb. HM.
30. _____ : Ein Entenbild. HM.
31. _____ : Okkekimi und Poksimi. HM.
32. _____ : Die trauernde Katze. HM.
33. _____ : Wie der arme Namsanhi zu einer Frau kam. HM.
34. _____ : Der Dieb am Sylvester. HM.
35. _____ : Der hungrige Fasan. HM.
36. _____ : Der kranke Fuchs. HM.
37. _____ : Die Schildkröte und der Hase. HM.
38. _____ : Die Wette, die niemand gewinnt. HM.
39. _____ : Naktong, der Maler. HM.
40. _____ : Ein Roman - "Pack" - nicht komplett (160 Seiten). HM.

41. _____: "Kampf um den Sohn" - Eine Novelle, 85 Seiten. HM.
42. _____: "Der Weg nach Westen" - Eine Novelle, 63 Seiten. HM.
43. _____: "Immer noch fließt der Yalu - Ein Teil der Fortsetzung von 『Der Yalu fließt』, HM.
44. _____: Neun kleine Erzählungen - "Iyagi" mit dem Vorwort in Englisch: insgesamt 89 Seiten. HM.
45. _____: Koreanische Mädchen. HM.
46. _____: Die Eingeborenen. HM.
47. _____: Grabkult in Korea. HM.
48. _____: Es war einmal. HM.
49. _____: Aus heiterem Japan. HM.

번역된 작품(Übersetzungen der Veröffentlichungen)

1. 『Der Yalu fließt(압록강은 흐른다)』

1) 영문판
(1)The Yalu Flows : H. A. Hammelmann 옮김, London (Harvill Press), 1954.
(2)The Yalu Flows : H. A. Hammelmann 옮김,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56.
(3)The Yalu Flows : H. A. Hammelmann 옮김, Canada (Collins), 연도미상.
(4)The Yalu Flows : H. A. Hammelmann 옮김, New York(W. W. Norton), 1975년.
(5)The Yalu Flows : H. A. Hammelmann/Gertraud Gutensohn 옮김, New Jersey(Hollym International Corporation)/Seoul (Bumwoo Publishing Co.), 1986.

2) 프랑스어판
Une Enfance En Corée: Isabelle Boudon 옮김, Arles(Philippe Picquier), 1994.

3) 불가리아어판
Яny Teye: 마리아 네이크바 옮김. 불가리아 소피아(삼발라 출판사), 2000.

4) 국문판
(1) 압록강은 흐른다, 전혜린 옮김, 서울(여원사), 1959.
(2) 압록강은 흐른다, 김윤섭 옮김, 서울(입문사), 1959.
(3) 압록강은 흐른다, 전혜린 옮김, 서울(홍익출판사), 1967.
(4) 압록강은 흐른다, 전혜린 옮김, 서울(범우사), 1973.
(5) 압록강은 흐른다, 한봉흠 옮김, 서울(정한출판사), 1975.
(6) 압록강은 흐른다, 김윤섭 옮김, 서울(청산문화사), 1976.
(7) 압록강은 흐른다, 전혜린 옮김, 서울(명문당), 1977.
(8) 압록강은 흐른다, 정규화 옮김, 서울(범우사), 1982, 2000, 2006.
(9) 압록강은 흐른다 (상, 하), 정규화 옮김, 서울(다림), 2000, 2003.
(10) 압록강은 흐른다, 김은애 옮김, 서울(문학과 현실사), 2001.
(11) 압록강은 흐른다, 엄혜숙 옮김, 서울(계수나무), 2002.

2. Iyagi(이야기), Fragmente(유고)

1) 국문판

(1) 이야기, 정규화 옮김, 서울(범우사), 1974년

(2) 무던이, 정규화 옮김, 서울(범우사), 1980년.

(3)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 정규화 옮김, 서울(범우사), 1977년, 2006.

(4) 어머니, 정규화 옮김, 서울(계수나무), 2003년.

3. Essay(수필), Märchen(동화)

1) 국문판

(1) 이상한 사투리, 정규화 옮김, 『주간조선』, 서울 1984년 7월 29일, 제 804호.

(2) 일본식 두통, 정규화 옮김, 『주간조선』, 서울 1984년 7월 29일, 제 804호.

(3) 혼동, 심미경 옮김, 『여대생』, 서울 1984년 10월호.

『압록강은 흐른다』의 발췌문이 국내 교과서에 실린 곳

(Ausschnitte aus dem Roman 『Der Yalu fließt』 in koreanischen Schulbüchern)

1. 초등학교 국어 6-2, 〈옥계천에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년, 124-131쪽.
2. 초등학교 6, 손오공 논술, 〈옥계천에서〉, 신원문화사 (박광서 엮음), 2005년, 194-197쪽.
3. 고등학교 문학 (하), 〈대서양에서〉, 천재교육, 2003년, 355-358쪽.
4. 고등학교 문학 (하), 〈압록강은 흐른다〉, 민중서림, 2003년, 61쪽.
5. 고등학교 문학 (하), 〈구교육과 신교육〉, 디딤돌, 2004년, 106-108쪽.
6. 고등학교 문학 (하), 〈감상과 반응〉, 청문각, 2006년, 356-358쪽.
7. 고등학교 문학 (하), 〈근대 이후의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상문연구사, 2006년, 301쪽.

학술 작업(Wissenschaftliche Arbeiten)

1. Koreanische Grammatik (122 Seiten). HM.
2. Lehrbuch der Schreibkunst - Chinesisch - (130 Seiten). HM.
3. Chinesische Philosophie - "Menzius" - (53 Seiten). HM.
4. Chinesische Philosophie - "Lunyü" - (34 Seiten). HM.

□ 이미륵 자료 목록 수집 및 정리: 정규화

□ 이미륵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www.mirokli.com)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륵 문고 소장자료 목록

순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표제	저작자	출판사	발행년도	총면수
1	WM185095	미륵 012-K846	Koreana	herausgegeben von der Deutsch-Koreanischen Gesellschaft e.V	Schriftenreihe der Deutsch-Koreanischen Gesellschaft	1988	61
2	WM185185 WM185186 WM185187 WM463935	미륵 012-M676	Mirok Li-Bibliographie	gesammelt und versehen von Kyu-Hwa Chung	[s.n.]	1982	120
3	WM185056	미륵 327.2-B595	Bilanz einer Freundschaft	herausgegeben vom Komitee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 mit einem Vorwort von Heinz Schwarz	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	1984	122
4	WM185054	미륵 574-L693r	Regulative Erscheinungen bei der Planarienregeneration unter an-normalen Bedingungen	von Yiking Li	Julius Springer	1928	54
5	JU300616	미륵 710-5-40-6(2)	(국어) 읽기	교육 인적 자원부 저	대한교과서	2004	230
6	WM185092	미륵 759.943-H149k	Kollektiv-Ausstellung	Ernst Haider, Gem¨alde, Zeichnung, Graphik ; Ferdinand Filler, Holzplastik	Mandruck	[1953]	24
7	EM1231122	미륵 810.4-구 135ㅎ	가교	Albrecht Hube [편집]	신구문화사	1993	421
8	EM2444278	미륵 810.906-1-1	재외한인작가연구	김현택...[등]지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413
9	EM1231138	미륵 814.6-고456ㅅㅅ	隨想集 望遠鏡	高柄翊 著	探究堂	1974	378
10	EM1231139	미륵 814.6-김 792ㅇ	藜堂隨筆集	金載元 著	探究堂	1973	380
11	EM1231137	미륵 814.6-전968ㄱ전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田惠麟 著	大文出版社	1972	326
12	WM185064	미륵 830.3-K97a	Autorenlexikon der Gegenwart	von Karl August Kutzbach	H. Bouvier u. Co. Verlag	1950	517
13	WM185067	미륵 830-F147-2	(Der) F¨ahrmann	herausgegeben von Heribert Keh	C.C. Buchners Verlag	[19--]	260
14	WM185082	미륵 830-L693a	(Der) andere Dialekt	Mirok Li ; herausgegen von Kyu-Hwa Chu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1984	355
15	WM185061	미륵 830-N481-5	(Die) neue Silberfracht	herausgegeben von Gottfried Stein und Oswald Stein	Hirschgraben-Verlag	1967	197
16	WM185063	미륵 830-N481-6	(Die) neue Silberfracht	herausgegeben von Gottfried Stein und Oswald Stein	Hirschgraben-Verlag	1967	220
17	WM185062	미륵 830-N481-8	(Die) neue Silberfracht	herausgegeben von Gottfried Stein und Oswald Stein	Hirschgraben-Verlag	1968	231
18	WM185093	미륵 831.6-F911	Friedrich H¨olderlin an Immanuel Niethammer	mitgeteilt von Johann Ludwig D¨oderlein	Schillernationalmuseum Marbach	1970	14
19	WM185057	미륵 831.6-L628-7	Lesebuch f¨ur h¨ohere Lehranstalten		Bayerischer Schulbuch-Verlag	1964	289
20	WM185058	미륵 831.9-L628-9	Lesebuch f¨ur h¨ohere Lehranstalten		Bayerischer Schulbuch-Verlag	1960	258
21	WM185090	미륵 833.914-C559l	Leben und Werk Mirok Lis	Kyu-Hwa Chung	誠信女子大學校	1992	21
22	WM463936	미륵 833.914-L693	Яну ТЕЧЕ	Мирък Ли [저]	Sччмвччч Books	2000	191
23	WM673624	미륵 833.914-L693a2	(Der) Andere Dialekt	Mirok Li	EOS	c2011	347
24	WM185071	미륵 833.914-L693e	(Une) enfance en Cor´ee	Li Mirok ; traduit de l'allemand par Isabelle Boudon	Philippe Picquier	c1994	177
25	WM185076	미륵 833.914-L693i	Iyagi	Mirok Li ; herausgegeben von Kyu-Hwa Chung	EOS Verlag	c1974	305
26	WM233911	미륵 833.914-L693iy	Iyagi	Mirok Li ; herausgegeben von Kyu-Hwa Chung ; Illustrationen von Im-Pok Chung	EOS Verlag	c1996	198
27	WM673626	미륵 833.914-L693iy2	Iyagi	Mirok Li	EOS	c2011	199
28	WM185080	미륵 833.914-L693v	Vom Yalu bis zur Isar	Mirok Li ; herausgegen von Kyu-Hwa Chung	Benedict Press	1982	233
29	WM673620	미륵 833.914-L693v2	Vom Yalu bis zur Isar	Mirok Li	EOS	c2011	186
30	WM185065	미륵 833.914-L693ya	(Der) Yalu Fliesst	Mirok Li	B¨uchergilde Gutenberg	1954	213
31	WM185066	미륵 833.914-L693yb	(The) Yalu Flows	Mirok Li ; translated by H.A. Hammelmann ; wood engravings by John de Pol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56	158
32	WM185068	미륵 833.914-L693yc	(The) Yalu flows	by Mirok Li ; edited by Kyu-Hwa Chung ; translated by H.A. Hammelmann & Gertraud Gutensohn ; illustrated by Im-Pok Chung	Hollym International	c1986	214
33	WM185069	미륵 833.914-L693yd	(The) Yalu flows	by Mirok Li ; translated by H.A. Hammelmann	Harvill Press	1954	193

순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표제	저작자	출판사	발행년도	총면수
34	WM185073	미록 833.914-L693yf	(Der) Yalu Fliesst	Mirok Li	EOS Verlag	c1974	225
35	WM185055	미록 833.914-L693yg	(Der) Yalu Fliesst	Mirok Li	R. Piper & Co.	c1946	223
36	WM233912	미록 833.914-L693yh	(Der) yale fliesst	Mirok Li ; Herausgegeben von Kyu-Hwa Chung ; Illustrationen von Im-Pok-Chung	EOS Verlag	c1996	204
37	WM673622	미록 833.914-L693yh4	(Der) Yalu fließt	Mirok Li	EOS	c2011	215
38	WM185183	미록 833.914-S392a	Asian and western world views in the literature of Mirok Li, a cultural mediator between Korea and Germany	Stefanie U. Schumacher	Yonsei University	1990	100
39	WM185088	미록 833.914-S864k	(Ein) kultureller Mittler zwischen Fernost und Europa	Karl Stocker	韓國獨語獨文學會	1988	37
40	WM185052	미록 833-S297k	Kleiner Herbstrlaub	von Elisabeth Schalk	s.n.]	[19--]	24
41	EM1758057	미록 850.5-정 148ㄷ	독문학과 현대성	정규화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범우사	1996	743
42	EM3427447	미록 850.6-5-1	이미록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회	정규화 편저	해외문화홍보원	1999	48
43	EM4824795	미록 853.099-10-1	이미록 평전	정규화	범우	2010	410
44	EM4881598	미록 853-10-1	鴨緑江は流れる	李弼勒 著者	草風館	2010	255
45	"JU147252	미록 853-1-1-1-2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록 글	다림	2000	390
46	JU169427	미록 853-1-64	무던이	이미록 글	계수나무	2001	164
47	EM3427451	미록 853-5-1	압록강은 흐른다 (외)	이미록 지음	범우사	2003	467
48	JU300612	미록 853-5-63	어머니	이미록 글	계수나무	2003	192
49	"JU300613	미록 853-5-64-1-2	(이미록의) 이야기	이미록 글	계수나무	2002	387
50	JU300615	미록 853-5-65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록 글	계수나무	2005	281
51	EM1231133	미록 853-ㅇ|316 ㄱ정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	李미록 著	汎友社	1977	268
52	EM1231134	미록 853-ㅇ|316ㅁ	무던이	李미록 著	汎友社	1980	205
53	EM1231123	미록 853-ㅇ|316 ㅇㄱ	(Der) Yalu Fliesst	Li Mirok 저	新志社	1974	227
54	EM1231129	미록 853-ㅇ|316 ㅇㄷ전	압록강은 흐른다	李儀景 著	明文堂	1977	231
55	EM1231125	미록 853-ㅇ|316 ㅇㄹ김	鴨綠江은 흐른다	李彌勒 著	青山文化社	1976	212
56	EM1231132	미록 853-ㅇ|316 ㅇㄹ정	압록강은 흐른다	李미록 著	汎友社	[발행년 불명]	208
57	EM1231136	미록 853-ㅇ|316 ㅇㅇ정	이야기	李미록 著	汎友社	1976	194
58	EM1231124	미록 853-ㅇ|316 ㅇ정	압록강은 흐른다 (외)	이미록 지음	범우사	1989	323
59	WM185077	미록 895.112-C539	Chinesische Gedichte aus der Tang-Zeit	¨ubertragen von G¨unther Debon	R. Piper & Co Verlag	1959	66
60	WM185083	미록 895.612-J35	Japanische Dichtung	herausgegen von Mirok Li ; ¨ubertragen von Julius Kurth	M¨ULLER & Kiepenheuer Verlag	c1949	90
61	WM185070	미록 915.19033-K16g	(The) grass roof	Younghill Kang;Mirok Li	W.W. Norton & Company	1975	350
62	WM185059	미록 920.043-P665m	Mein Leben als Verleger	Reinhard Piper	R. Piter & Co Verlag	1964	806
63	WM233913	미록 920-S725k	Kulturbegegnung/Kulturkonflikt	Karim El Souessi	Universit¨at M¨unchen Institut Deutsch als Fremd-sprache	c1995	143
64	WM185087	미록 943-I612	Interkulturalit¨at und Deutschunt-erricht	Kurt Franz und Horst Pointner (hrsg.)	ars una	1994	319
65	WM185074	미록 950-S444e	Einf¨uhrung in die Kunst Ostasiens	Dietrich Seckel	R. Piper & Co Verlag	c1960	464
66	WM185078	미록 951.01-C539	Chinesisches Tapetenb¨uchlein	text von Guang Shih Gao	C. Bertelsmann Verlag	1957	51
67	WM185094	미록 951.904-K845e	Korea Erz¨ahlt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1954	41
68	WM185085	미록 951.904-L389k	Korea	Hermann Lautensach	K.F. Koehler Verlag	c1950	156
69	WM185096	미록 012-K847	Koreana	herausgegeben von der Deutsch-Koreanis-chen Gesellschaft e.V	Schriftenreihe der Deutsch-Koreanischen Gesellschaft	1988	256

□ 이미록 문고 소장자료 213점 중 2012년 12월에 목록화한 69종 74책의 도서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1899 ~ 1950

Mirok Li, der von Deutschen geliebte Weise des Orients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

Mirok Li, der von Deutschen geliebte Weise des Orients

기 간 | 2013. 9. 13(금) ~ 2013. 10. 27(일)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로비

주 최 |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후 원 | 주한독일대사관, 주한독일문화원, (사)한독협회

펴낸날 | 2013년 9월 13일

펴낸이 | 임원선

펴낸곳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우) 137-702

전화 (02)3483-8830 / 팩시밀리 (02)590-0607

http://www.nl.go.kr

편집 · 디자인 | 팬텀플러스

ⓒ 국립중앙도서관, 2013

ISBN 978-89-7383-885-1

비매품

03810

9 788973 838851

ISBN 978-89-7383-885-1